

## 이해하며 감상하기

### 단성 음악과 초기 다성 음악

- 중세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단성 음악과 초기 다성 음악을 구분할 수 있다.
- 음악을 듣고 시대별 음악 특징을 설명하는 비평문을 쓸 수 있다.

#### 1. 이해하며 감상하기

##### (1) 악곡의 특징 이해하기

단성 음악	초기 다성 음악
<p>부속가 '파스카의 희생을 찬미하라(Victimae Paschali Laudes)'</p> <p>'파스카의 희생을 찬미하라'는 '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에서 발췌한 부활절 미사의 부속가(sequentia)'이다. 부속가는 9세기 말부터 12세기까지 유행했던 것으로 초기에 불렸던 다른 성가들과 다르게 새로 작곡된 성가이다. 대부분이 대구로 된 가사에 단음절적으로 음이 붙어 있고 특정일에 한해서 불렸다. 예수 부활 대축일은 그리스도교의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축일 중 하나로 이 곡은 부활절(특정일) 미사에서 알렐루야 다음에 노래된다. 성 로마제국의 신부였던 비포(Wipo, 995경~1050)가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 모두 8행으로 구성되어 있다.</p>	<p>'임마누엘을 보았도다(Viderunt Emmanuel)'</p> <p>작곡가를 알 수 없는 이 곡은 12세기 초의 프랑스 남서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. 9세기에 쓰여진 오르가눔은 그레고리오 성가의 선율이 위 성부에 위치하며 주 성부라고 불렸고, 그 선율과 병행하는 오르가눔 성부는 아래 성부에 놓였으나,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변화되어 12세기에는 오르가눔 성부가 위 성부의 역할을 하게 되고 선율의 독자성이 부여되면서부터 다성 음악의 발전은 빨라진다. 이 곡은 장식 오르가눔의 양식으로 된 두 성부의 곡이며 일반적인 오르가눔과는 다르게 주성부의 선율은 그레고리오 성가가 아니라 별도로 작곡된 것이다.</p>

#### 2. 감상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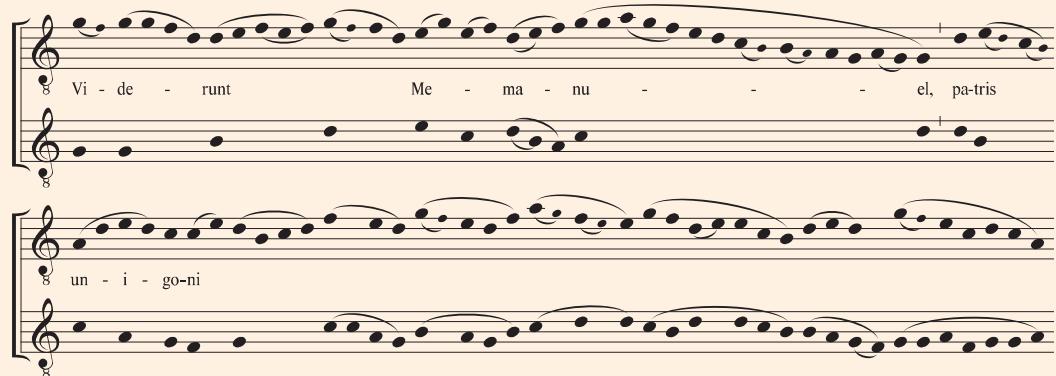
##### (1) 부속가 '파스카의 희생을 찬미하라(Victimae Paschali Laudes)'

이 부속가는 단성부의 곡으로 가사의 첫 행과 마지막 행을 제외하고 둘씩 짹을 이루어 2, 3행, 4, 5, 6, 7행은 같은 선율로 부르게 되어 있고 각각 짹을 이룬 두 행은 그 음절수가 동일하다. 즉 A BB CC DD .....N의 구조를 지닌다. 또한 한 음절의 가사에 하나의 음표가 붙는 단음절(syllabic) 양식이다. 이 곡은 제1선법인 도리아 선법으로, 강조하는 음이 도리아 선법의 중심음 '가(a)' 음으로 매우 분명하며 모든 프레이즈가 선법의 종지음인 '라(d)' 음으로 끝난다.

The musical notation consists of three staves of music in G clef. The first staff begins with the lyrics "Vic - ti - mae pa - scha - li lau - des im - mo - lent Chri - sti - a - ni." The second staff continues with "A - gnus red - e - mit o - ves? Chri - stus in - no - cens Pa - tri re - con - ci - li - a - vit pec - ca - lo - res." The third staff concludes with "Mors et vi - ta du - el - o con - fli - xe - re mi - ran - do: dux vi - tae mor tu - us, re - gnat vi - rus." Below the staves, numbered lyrics are provided: 4. Dic no - Bis - Ma - ri - a, quid vi - di - sti in vi - a?  
5. An li - cos te - stes, su da - ri - um, et ve - stes.

## (2) '임마누엘을 보았도다(Viderunt Emmanuel)'

이 곡은 주성부와 오르가눔 성부 사이의 관계를 볼 때 단음적인 부분, 다음적인 부분, 그리고 하나의 주성부 음에 서너 개의 음이 붙어 있는 것을 포함해서 모두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. 다음적인 곳은 'Emmanuel'의 'nu' 음절 부분과 'Piacio'의 'ci' 음절의 끝부분으로 위성부는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선을 그리고 있으며, 단음적인 부분에서 두 성부의 진행은 병진행보다 반진행이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.



### 감성 역량

#### 활동 1

중세 시대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단성 음악인 '파스카의 희생을 찬미하라'와 초기 다성 음악인 '임마누엘을 보았도다'를 감상해 보자.

짜임새	제목	곡의 느낌
단성 음악	파스카의 희생을 찬미하라	
다성 음악	임마누엘을 보았도다	

### 자기 관리 역량

#### 활동 2

오르가눔을 이해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단성 음악과 다성 음악의 정의를 내려 보자.

단성 음악이란?	
다성 음악이란?	



### 지식 더하기

#### • 오르가눔

9세기에서 13세기까지의 초기 다성 음악. 그레고리오 성가 선율과 나란히 새로운 선율을 덧붙여 만들었다.

- 병행 오르가눔(9세기): 주성부의 5도 아래에서 병진행하는 오르가눔
- 자유 오르가눔(11세기): 주성부의 움직이는 방향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는 오르가눔
- 장식 오르가눔(12세기): 주성부를 아래 성부에 두고 위성부를 자유롭게 꾸미는 오르가눔